

창립 28돌 ... 1천6백여 회원 모여 학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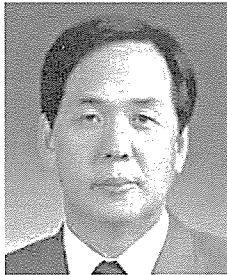
한국조경학회

최근 들어 고도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의 생존환경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고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조경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될 뿐 아니라 인간 생존차원에서 볼 때 조경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건설산업이다.

한국조경학회는 1970년대 초 정규 대학과정의 조경학과 개설, 정부투자기관의 조경관련 직제개편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창립이 추진되었으며, 1972년 12월 29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조경학의 학문적 개념정립, 한국 조경계의 위상정립 및 대내외적 활동방법 모색을 통하여 공원조경, 어린이대공원 조경, 서울대 종합캠퍼스 조경 및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 조경분야의 활동영역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조경학회는 창립 이후, 꾸준한 학술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 및 전시회 등 학술관련 행사 개최와 아울러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대외홍보를 위하여 1995년 10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을



金裕逸

(한국조경학회장/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

허가받게 되었다. 창립 초기 2백여명에 불과한 회원으로 출발한 한국조경학회는 현재 1천6백여명의 회원과 9개의 학술분과위원회, 1개의 지방지부를 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9개 분과위 중심으로 활동

학술분과위원회는 조경식물 및 관리분과, 조경설계/도시설계 및 계획분과, 역사 및 문화재분과, 경관분석 및 환경심리분과, 컴퓨터 응용분과, 관광 및 레크레이션분과, 생태조경분과, 조경구조 및 시공분과, 실내조경분과가 있어 세부적인 전문 학술분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회 회원 및 비회원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 지회로는 호남지회가 매년 학생조경작품전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서 지회 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국적 지회조직을 갖춘 대규모 학회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학회의 정기간행물인 「한국조경학회지」는 각종 연구논문의 발표의 장으로써, 1973년 10월에 창간되었으며, 이후 연 2회 발간하던 것을 점차 증간시켜 현재 연 6회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회지를 발간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4년 1월 11일 1차 정기총회와 아울러 개최된 학술발표회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는 연 1회, 그 이후부터는 봄·가을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75년 1월 27일 일본학자 酒井 沼를 초청하여 '식물의 저온 및 냉해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의 자리를 마련한 이후로 외국학회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1996년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과 1997년 한국의 도시 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각국의 저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세계무대에서 한국 조경학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회설립 초창기

1972년 12월 2백여명이 모여 창립된 한국조경학회는 현재 1천6백여명의 회원이
 9개 학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성한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학술대회를 봄·가을로 나누어 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학회지는 격월간으로 연 6회 발간하고 있다.
 지난 92년엔 세계 조경가대회를 유치하여 서울과 경주에서 개최한 조경학회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다가 1992년 IFLA(세계조경가대회) 세계대회를 서울과 경주에서 개최하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전통성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열띤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을부터 남북학술교류 추진

또한 일본 및 중국과는 매년 지속적인 학술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고, 3년 전인 1998년부터는 3국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1998년 제1회 한·중·일 심포지엄에 이어 2001년 대회는 울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1999년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아시아권 10여개국이 참가한 IFLA 동부지역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아시아권의 조경학계의 중심

적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

본 학회에서는 새로운 21세기에는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동북아권이 부상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경학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중 구체적인 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2001년에 남북한 학술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합단체가 세계 조경학계에서 확고한 주도자가 되고자 한다.

1997년 특수건설에 속해있던 조경분야를 전 조경인의 뜻을 모아 일반건설업으로 포함시킨 것을 필두로 1998년부터는 조경학회 내에 조경직제설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향후 예상되는 그린라운드 등 환경과 관련된 세계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쟁

력 제고와 국민의 후생·복리증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직급에 조경직을 설치하도록 관계부처에 청원을 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방학이용, 여름조경학교 열어

또한 후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에게는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고 기성 조경인들에게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 조경분야에서의 대처능력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계방학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매년 여름조경학교를 개최하여 현재 7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태초에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생을 영위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이라는 미명 하에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탈피한 기계문명 속으로, 자연을 떠나 인공화 되어 있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20세기를 살아왔다.

21세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우리 조경학회의 전 회원은 지구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주를 생각하는 자세로 우리의 환경을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㉔